스위스가 제안하는 도시 체험: 문화편.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자연, 문화, 전통의 보존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스위스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도시의 역사와 자연의 품 깊숙이 들어가 스위스 체험
리하르트 바그너의 자택 앞 마당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제, 루체른 페스티벌
과거 산업지대의 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해 문화 예술 지구로 재탄생 시킨 취리히 서부지역
자전거 타고 돌아볼 수 있는 과거 산업지대와 감각적인 박물관이 모인 빈터투어
도시의 역사를 따라 발전한 독특한 개성 체험이 스위스 도시 여행의 핵심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7 년,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 가지를 소개하고, 이 체험거리를 보다 쉽게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하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만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은 자연에도 있지만, 스위스 도시에서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도시는 개발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연'과 '문화', '전통'의 보존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도시에서 만나보기 힘든 풍경을 접할 수 있다. 여행자들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도시의 역사와 자연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가 스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 중, 특별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 세 곳을 소개한다. 도시의 역사를 따라 발전한 독특한 개성을 체험해 보지 않고 도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루체른 페스티벌(Lucerne Festival)

1938 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악제, 루체른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솔로이스트들을 매년 루체른에 초대하고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이 열리는 카카엘(KKL) 문화 컨벤션 센터는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한 건축물로, 루체른의 로맨틱한 구시가지와 호수, 증기 유람선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 오는 풍경을 선사한다. 루체른 페스티벌에 푹 빠진 십만명 이상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루체른을 찾고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은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 소리를 내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루체른 페스티벌은 러브 스토리로도 유명한데, 그 주인공이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다. 축제의 기원은 트리브쉔(Tribschen)에 자리한 바그너의 집에서 1938 년 처음으로 열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 지휘의 콘서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그너는 1866 년부터 1872 년까지 이 집에서 거주했는데, 루체른 도시와 호수, 주변 산들에 매료되어 그 아름다운 풍경을 '진정한 원더랜드'라 부르곤 했다고 전해진다. 이 빌라에서 바그너는 많은 작품을 작곡했는데, 현재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그너의 집 앞에서 열 곡이 연주되었던 루체른 페스티벌 초연 이래 수 많은 것이 변했다. 오늘날 루체른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식 음악회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매년 전 세계의 스타 뮤지션들이 루체른 한 자리에 모이고 있다. 현재 페스티벌은 여름 프로그램 동안 100 회 이상의 콘서트가 열리고, 1988 년 봄부터 열리고 있는 부활절 축제에서는 종교음악에, 1998 년부터 가을부터 열리고 있는 피아노 페스티벌에서는 키보드의 명장들에 초점을 맞추어 훌륭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카카엘이 오픈하면서 1990 년 후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루체른 시민들은 호반에 세워진 장 누벨의 인상적인 건축물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카카엘에는 콘서트홀과 컨퍼런스 센터, 미술관이 한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지붕 아래 들어서 있는데, 수 많은 문화 행사 중에서도 루체른 페스티벌이 하이라이트이다. 콘서트 홀의 어쿠스틱 효과가 특히 유명한데, 뉴욕 출신의 건축가이자 어쿠스티션인 러셀 존슨(Russell Johnson)의 작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아트 디렉터인 미카엘 해플리거(Michael Haefliger)는 "우리의 임무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를 루체른에 모심으로써, 항상 놀라운 요소를 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미카엘 해플리거는 1999 년부터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이그제큐티브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티브한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큰 몫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위스의 테너, 에른스트 해플리거(Ernst Haefliger)의 아들로, 초년기부터 클래식 음악에 큰 애정을 갖고 바이올린 연주도 했던 인물이다. 미카엘 해플리거는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와 함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ucerne Festival Orchestra)를 창단하고,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와 함께 루체른 페스티벌 아카데미(Lucerne Festival Academy)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차기 세대의 뮤지션들을 끊임 없이 지원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2016 년부터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밀라노의 라 스칼라(La Scala) 극장의 음악감독, 리카르도 샤이(Riccardo Chailly)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샤이는 밀라노에서 1970 년 데뷔를 했는데, 당시 21 세였던 그는 라 스칼라 극장 디렉터였던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개인적인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후 암스테르담의 왕립 콘서트허바우(Royal Concertgebouw)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이동했다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Leipzig Gewandhaus) 오케스트라로 향했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카르도 샤이는 세계적인 콘서트 홀에서 정기적으로 기막힌 연주를 선사하고 있다.

루체른 관광청: www.luzern.com
루체른 페스티벌: www.lucernefestival.ch

2. 취리히 웨스트(Zurich West)
과거 산업 지대에서 디자인의 요람으로 변모한 취리히 서부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도시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최근 십여년간 취리히 서쪽의 옛 공장지대는 문화와 창의력의 온실로서 새 생명을 찾았다. 한때 배와 엔진을 생산하던 이 곳은 이제 예술, 미식, 쇼핑, 건축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 중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것은 디자인 박물관(Museum für Gestaltung)으로, 디자인, 그래픽, 응용 미술 및 포스터 콜렉션이 전 세계 디자인 컬렉션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7 년 3 월부터 스위스의 관광산업 발전의 역사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 특별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취리히에는 구시가, 호수, 매력적인 반호프슈트라세(Bahnhofstrasse) 외에도 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 도시의 서쪽에 자리한 옛 공장지대는 지난 10 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1894 년 건설된 철도 육교의 아치 아래로, 이젠 다양한 델리, 스튜디오, 갤러리, 패션 브랜드가 들어서 있다. 모퉁이를 돌면 빈 선적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타워가 있는데, 이곳엔 트럭의 방수덮개를 재생해 세련된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의 플래그쉽 스토어가 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바와 레스토랑이 딸린 도시형 비어 가든,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Frau Gerolds Garten)'이 있으며, 이곳은 도심의 푸른 오아시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2014 년 9 월, 국립 그래픽 디자인 능률센터를 겸한 디자인 박물관(Museum für Gestaltung)은 토니(Toni) 유제품을 생산하던 옛 공장 자리에 “샤우데포(Schaudepot)”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현재 디자인, 그래픽, 응용 미술, 포스터 등 총 네 가지 컬렉션을 아우른다. 에르메스 베이비(Hermes Baby) 타자기부터 혁신적인 스위스 가구에 이르는 50 만 점 이상의 전시품을 통해 산업화 이후 유행과 디자인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가이드 투어를 통해 샤우데포(Schaudepot)의 각종 기록물 역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하였다.

포스터 컬렉션 큐레이터 베티나 리히터(Bettina Richter)는 방문객들이 "샤우데포” 투어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가이드다. 이곳 디자인 박물관이 보유한 컬렉션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한 방대한 양과 뛰어난 작품성을 자랑한다. 전시 중인 포스터 40 만 점으로 포스터가 처음 등장한 19 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스위스 및 전 세계 포스터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 관광 홍보 100 주년 기념, “휴가를 떠나다(Go on Vacation)” 전시가 이 곳 샤우데포에서 열렸는데, “샤우데포” 소유의 포스터 콜렉션 중 스위스 관광 포스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7 년 10 월 27 일부터 2018 년 3 월 11 일까지는 “슈테판 자그마이스터(Stefan Sagmeister)의 해피 쇼” 전시를 연다.

취리히 관광청: www.zuerich.com

3. 취리히 지역 - 빈터투어(Winterthur)

취리히 근교의 빈터투어는 변화하고 있는 도시로 스위스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빈터투어의 산업 문화를 탐험해볼 수 있어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특히 옛 건물 속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색다른 영감을 받을 수 있어 로컬들 사이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국내 여행지로 주목 받고 있다. 빈터투어는 과거 스위스 산업의 수도였다. 산업가들은 박물관과 미술 콜렉션과 같은 훌륭한 유산뿐만 아니라 번창하던 산업적 문화도 남겼다. 옛 공장 건물들이 이제는 창조의 장소로 탈바꿈하였고, 디젤 엔진은 예술로 승화됐다. 자전거 여행은 구시가부터 포토그래피 빈터투어(Photography Winterthur) 센터와 슐처(Sulzer) 지구를 돌며 이 매력적인 유산을 느껴보기 좋은 방법이다.

빈터투어 기차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출발할 수 있다. 산업은 빈터투어를 스위스의 여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만들었다. 빈터투어는 과거 스위스 산업의 수도였다. 슐처 그룹 최초의 기계 공장이 이곳에 들어섰고, 1980 년대 말까지 이 현장에서 엔진을 생산하던 근로자의 수가 만 명이 넘었다. 산업으로 인해 빈터투어는 자신만의 문화를 지니게 되었다. 빈터투어 산업 시대의 유산은 현재 도시의 중요한 예술 콜렉션이 되었다. 예를 들면 옛날 자택에 전시되어 있는 오스카 라인하르트(Oskar Reinhart: 1885-1965)의 작품처럼 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명을 얻은 옛 생산 현장에서 실제 산업으로부터 파생된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슐처 지구 탐험도 매력적이다. 슐처 지구는 무질서한 반면 매우 완벽한 스위스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는 슐처 지구가 “작은 베를린(little Berlin)”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과거 커다란 산업지역이었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스위스 내에서 이러한 형태는 처음이었다. 버려진 철도 사이에 있는 옛 공장은

이제 패션부터 바이널 레코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부티크가 모인 창조성의 둥지가 되었다. 헌 기계 진열 선반은 첨단 예술을 전시하고, 목재 공장이었던 곳에서는 편안히 숙박을 할 수 있다.

오래된 기차 객차에서 맛보는 칵테일 한 모금도 특별하다. 2015 년 말부터 29 세의 안야 홀렌슈타인(Anja Holenstein)과 그녀의 사업 파트너는 빈터투어의 옛 산업 단지 슐처 지구에서 "화물기차 식당(Bistro les Wagons)"을 운영해오고 있다. 위틀리베르그(Uetliberg) 철로를 달리던 3 세기의 역사를 지닌 옛 객차 안에서 '약국에서 영감을 받은' 음료와 지역 특선 요리를 즐기는 동안 밖으로는 취리히를 향해 달리는 통근 기차가 재빨리 지나간다. "저는 슐처 지구에 살아 숨쉬는 옛 산업의 매력을 무척 좋아해요."라고 안야 홀렌슈타인은 말한다.

빈터투어 도시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약 13km 에 달하는 산업 문화 트레일은 도시 전체를 가로지른다. 루트에는 슐처 지구는 물론, 구시가의 응용미술 디자인 박물관(Gewerbemuseum)이 포함된다. 이 박물관에서는 일상의 문화, 예술, 공예, 디자인과 산업 생산물이 만나는 살아 움직이는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빈터투어의 구시가를 돌아보는 것도 낭만적이다. 포토그래피 빈터투어(Photography Winterthur) 센터는 꼭 한 번 들러 보아야 한다. 이 벽돌 건물은 옛 스타킹 공장으로, 현재는 고전 사진 및 현대 사진을 전시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여러 단계의 시간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방문객들은 작업실에서는 예술 교사 파트리지아 모시만(Patrizia Mosimann)과 함께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 현상을 탐구하고 가장 단순한 핀 홀 카메라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핀 홀 카메라로 하는 실험을 이끌고 있는 포터그래피 빈터투어 센터 아트 조정자인 파트리지아 모시만은 "오늘날 우리는 매일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누가 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을까요?"라고 묻는다.

포토그래피 빈터투어 센터 바로 옆에는 스위스 사진 장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스위스 사진 재단이 있다. 새로운 건물에 들어선 것은 물론 아니다. 재단은 이전에 원단에 염색작업을 하던 장소에 들어서 있다.

빈터투어 관광청: www.winterthur-tourismus.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